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CNBC: 2024년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은?
- CNN Business: 인플레이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미국인 삶을 바꾸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올해는 JP모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들 힘들었다
- WSJ: 소규모 은행들의 위기 발생.. 거대한 채권 포트폴리오 리스크

[미국 생활]

- The Economist: 미국인, 남부 작은 타운으로 거주지 옮긴다
- WSJ: 미국에서 장거리 버스 정류장 사라진다

[오일]

- Bloomberg: 유가, 홍해 운송 소용돌이에서 한달만에 최고치에서 하락

[전기차]

- WSJ: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

[물류]

- CNN Business: 머스크, “홍해 지역 운항 재개할 것”
- Bloomberg: 해운 기업 Hapag-Lloyd, “아직 홍해 지역 운항 너무 위험하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내년도 기업들, 줄어든 예산에도 IT 투자는 늘어날 듯
- Bloomberg: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개선된 모델 Y 출시 계획
- WSJ: NYT, 저작권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 고소하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BC: The U.S. avoided a recession in 2023. What's the outlook for 2024? Here's what experts are predicting
2024년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은?

- 미국 경제는 2023년에 침체를 피해 나갔다.
- 전문가들은 현재 전망하기를 내년에는 소프트랜딩 이거나 가벼운 경기 침체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밴쿠오브아메리카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침체 대신에 소프트랜딩을 예상하고 있다.
- 전국비즈니스경제협회(NABE)의 응답자 76%는 “향후 12개월간 침체 확률은 50이하”라고 전망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Inflation is nearly back to normal. But high prices have changed Americans' lives

인플레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미국인 삶을 바꾸다

-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미국인 삶을 바꾸었다.
-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에 가까워지면서 거의 회복세를 돌아섰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
- 특히 많은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식품 비용이 큰 상황이다.
- 다행히 인플레는 내년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금리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It Was a Tough Year for Almost Every Bank Not Named JPMorgan

올해는 JP모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들 힘들었다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올해 미국은행들은 부실을 겪은 한해였다. 거의 유일하게 JP모건은 약해진 경쟁사 First Republic Bank를 인수하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
- 반면에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금리 상승으로 자산가지가 급락하면서 파산하는 은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미국 은행의 5천8백40억불의 미실현 손실을 입었다. 일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은행들의 신용 등급도 강등되었다.
- 불안에 떨어 예금자들이 5백억불 이상의 돈을 JP 모건으로 옮겼다. 이 은행은 대출로 인한 수익과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수익의 차이인 순이자 수익의 기대치가 크게 올랐다. 올해 다른 은행을 크게 앞질렀다.

Bloomberg 기사

WSJ: Banking Crisis Plays Out at America's Smallest Lenders

소규모 은행들의 위기 발생.. 거대한 채권 포트폴리오 리스크

-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속도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크고 작은 은행들이 흔들렸다.
- 올봄에 대형 은행 3군데가 무너졌지만 실제 위기에 처한 곳은 커뮤니티 은행이다. 장기 채권에 대한 손실 때문에 예금자 투자자, 규제당국은 은행들이 금리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 커뮤니티 은행들은 지역경제 활력을 주는 기업과 가계에 소액 대출, 즉 일반 대출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서비스의 다양성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팬데믹 여파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 은행들은 예금을 안전한 유가증권 부문에 맡겨 금리 상승으로 이들 가치는 크게 하락했던 것이다.

WSJ 기사

[미국 생활]

The Economist: Americans are moving to smaller towns in the South 미국인, 남부 작은 타운으로 거주지 옮긴다

- 텍사스 오스틴이 테크 대도시로 되고 있다. 인구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3분의 1이 증가한 2백 30만명. 인구 증가에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샬럿에서부터 달라스까지의 선 벨트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유입자가 넘쳐났다. 조지아, 노스캐롤리나, 텍사스 등의 도시 유입이다. 상대적으로 북동 지역, 중서부와 서부는 인구가 줄었으며 남부 타운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소도시 생활에 대한 갈증과 원격 근무로의 변화 때문이다.
- 한 예로 아칸소 31개 중소도시는 과거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만불과 자전거를 제공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The Economist 기사

WSJ: Bus Stations Across America Are Closing 미국에서 장거리 버스 정류장 사라진다

- 미국내 도시사이를 잇는 그레이하운드 같은 버스의 정류장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적어도 7개 도시에 정류장이 사라졌다. 필라델피아, 콜럼버스, 타파 등이다. 수백만명의 승객들은 길거리 코너나 파킹장에서 탑승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 그레이하운드의 경우 수년간 승객 감소와 운영 부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현금 마련을 위해 정류장 건물을 매각하고 도심에 있는 역들은 아파트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Oil Falls From One-Month High as Red Sea Shipping Risks Swirl

유가, 홍해 운송 소용돌이에서 한달만에 최고치에서 하락

- 석유 가격이 한달동안 최고치에서 하락하고 있다. 홍해 지역에서 선박에 대한 일부 공격 때문에 일부 선박들이 이 지역의 항해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는 11월이후 2.5% 상승한 배럴당 80달러 가까이 거래되고 있다.
- 한편 선박 MSC United VIII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도중에 공격을 받았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들 공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항해 대책 팀을 만들었음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WSJ: How Electric Vehicles Are Losing Momentum with U.S. Buyers, in Charts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

- 전기차 수요 감소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이라 전망했던 전기차 업계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 특히,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중국과 유럽에 비해 크게 둔화됐는데, GlobalData에 따르면 3분기 대비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27%가 전기차였지만, 미국은 8%에 불과했다. 유럽은 15%였다.
-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유럽은 일찍이 환경 규제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판매를 적극 촉진한 반면, 미국은 관련 정책에서 후발주자이며 미국 기업들은 더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할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아직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 자동차 기업 경영진들과 분석가들은 가뜩이나 비싼 전기차 가격이 대중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5년엔 저렴한 전기차가 시장에 출시돼 상황이 변할 수 있을 거라 언급했다.
- 자동차 서비스 기업인 Cox Automotive의 분석가인 Stephanie Valdez Streaty는 앞으로 전기차 가격이 3만5천 불에서 4만불 아래에서 형성될 것이라 말했다.

WSJ 기사

[물류]

CNN Business: Maersk says it will resume shipping in the Red Sea 머스크, “홍해 지역 운항 재개할 것”

- 글로벌 해운 기업 머스크가 홍해 지역의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 머스크는 지난 일요일, 홍해와 아덴만 일대에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 함대가 홍해 지역의 상선 보호를 결정함에 따라 나왔다.
- 대략 10%에서 15%의 글로벌 무역 혹은 30%의 컨테이너선이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항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Shipper Hapag-Lloyd Says Red Sea Route Still Too Dangerous 해운 기업 Hapag-Lloyd, “아직 홍해 지역 운항 너무 위험하다”

- 거대 해운 기업 Hapag-Lloyd AG가 홍해 지역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주도 다국적 해군 함대가 출범했음에도, 홍해를 우회할 것이라 말했다.
- 이 기업은 기존의 홍해 항로를 희망봉(Cape of Good Hope, 아프리카) 우회하는 수천마일의 경로로 변경 및 유지할 것이라 말한 것이다.
- 오늘 수요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송 현물 운임이 지난 4주 동안 26% 상승했으며, 홍해 항로가 계속 우회되는 한 가격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Facing Tight Budgets in 2024, CIOs Seek Wiggle Room for Tech Investments 내년도 기업들, 줄어든 예산에도 IT 투자는 늘어날 듯

- 기술 기업 리더들은 경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다가오는 2024년에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 언급했다.
- 그러면서, 일부 리더들은 새해 예산이 줄어든 동시에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혁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Global CIO인 Anil Bhatt는 헬스케어 기업인 Elevance Health가 다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AI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업은 생성형 AI를 시간 소모가 큰 코딩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50%에서 70%까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 리서치 회사 International Data Corp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IT 지출은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에 예상된 것보다 5% 증가한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Tesla Plans Revamp of Smash Hit Model Y From China Plant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개선된 모델 Y 출시 계획

- 신규 전기차 출시 경쟁이 열띤 가운데,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 공장에서 테슬라가 큰 인기를 끌었던 모델 Y의 향상된 버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 모델 Y는 SUV 모델이며, 빠르면 2024년 중반에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 앞으로 출시될 2024년형 Y 모델은 새로운 휠 디자인을 비롯한, 외관과 실내 인테리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관계자는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New York Times Sues Microsoft and OpenAI, Alleging Copyright Infringement NYT, 저작권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 고소하다

- 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써, 언론 출판 업계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촉발했다.
- 뉴욕타임스는 수요일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위의 기술 회사들이 AI 제품을 만들기 위해 무단으로 자사의 콘텐츠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 반면에 이들 기술 회사들은 웹 콘텐츠로 AI를 훈련시키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라는 입장이다.
- 소송에 따르면, 관련 AI 제품은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스 콘텐츠를 학습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다고 한다.
- 이번 소송은 뉴스 업계의 가장 큰 기업과 인공지능 선구 기업 간의 법적 다툼이며, 기존의 기술 기업과 미디어 기업 간의 긴 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수개월에 걸친 협상이 결렬된 후에 제기된 것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월가, 내년 미국 증시 전망 낙관·비관론 양분

"깜짝 성장에 증시도 호조" vs "내년 성장 둔화 예상"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꼽은 종목은 엔비디아

내년 미국 증시 전망과 관련해 미국 월가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진 모습이다.

호조를 예상하는 쪽은 미 경제의 깜짝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성장 둔화를 점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올해 연말 주식과 채권, 금, 가상화폐 등 사실상 모든 투자수단에 돈을 넣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